

제11장 토론문

서론

발제자는 공공 문화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경제지리학적 접근과 GeoAI 기반의 분석을 제시해주었다. 이러한 제안은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공간적 데이터를 통해 계량화하고 정책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발제자의 결론 부분의 GeoAI는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완하는 분석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이 부분을 확장하여 본 토론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알고리즘과 불평등의 심화

발제문에서 언급되었듯이, GeoAI를 세부 입지 선정에 활용한다면, 물류비용의 최소화나 수요의 극대화를 위한 공간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곳을 찾는 것이 알고리즘의 목적이 된다면, 해당 알고리즘은 이미 대중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고, 인구와 자본이 밀집된 곳을 최적의 입지로 지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적 논리가 적용되는 일반 상업시설이라면, 이것이 옳을 수 있겠지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공공재적 성격과 지역균형발전과의 충돌

발제자가 서술한 바와 같이 예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한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러한 공공 문화시설을 설립하는 목적 중 하나인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함일 것이다. 만약 예타에서 위와 같은 GeoAI의 분석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것은 공간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문화 소외지역을 더욱 소외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결론

이러한 GeoAI의 이러한 특성은 발제자가 언급한 두 문제점 외에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발제자의 GeoAI를 보완적 도구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Geo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 소외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한다거나, 보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수정된 분석 결과를 여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토론을 제안하며 본 토론문을 마친다.

제12장 토론문

서론

발제자는 제12장의 핵심 내용을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와 연결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의미의 '식품 사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한국의 식품지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맥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본 토론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제문에서 잠시 언급된 '시간 부족'의 맥락에 주목해, 기존의 공간적 논의를 시간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시간지리학적 관점의 토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간 분석의 한계와 시간 빈곤 계층

제12장에서는 지역사회 영양 환경(community nutrition environment)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상점의 영업시간(operation hours)을 언급한다(p. 167). 그러나 기존의 많은 식품 환경 연구는 낮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공간 분포에 집중한다. 발제자가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편의점과 배달 음식 서비스가 발달해 있으며, 이것은 일견 시간과 관련 없이 전통적인 식품 사막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간의 영양 경관과 심야의 영양 경관은 전혀 다르다. 야근이 잦은 직장인,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이용 가능한 시간이 빈곤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없는 것을 시간 빈곤 계층이라 정의하는데(Vickery, C. (1977). *The Time-Poor: A New Look at Pover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1), 27-48),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다. 신선한 식재료를 파는 곳이나 건강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식당은 문을 닫고, 고열량·초가공식품 위주의 편의점과 배달 야식만이 이들의 선택지로 남는다. 즉, 시간적 요소가 고려될 때 이들은 '식품 사막'에 놓이게 된다.

GeoAI를 활용한 '동적 영양 경관'의 지도화

이러한 시공간적 불평등을 규명하는 데 있어 제12장에서 제시된 GeoAI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제12장의 사례 연구는 GeoAI 이미지 인식 모델을 통해 식당의 영양 정보를 평가하여 도시의 영양 경관을 지도화 했다. 이러한 GeoAI를 활용한 식품지리 연구에 소셜 미디어 타임스탬프, 배달 앱의 시간대별 주문 데이터, 그리고 상점의 영업시간 데이터를 결합한다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영양 경관'을 시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낮에는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보였던 도시의 지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계층의 거주지나 노동 지역을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GeoAI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발제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한국의 식품지리 연구는 영양의 질과 소비 맥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시간이다. 따라서 발제

문에서 언급된 한국 식품지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시간까지도 고려하고, 이러한 요소가 빈곤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한국의 영양 경관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